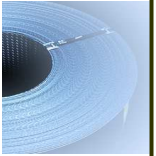


2005년 4호 (2005.7.27)

POSRI CE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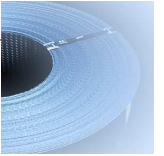
일본경제 회복할 것인가?



경영연구1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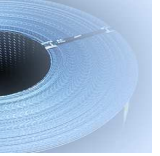
고준형, 박현성

EXECUTIVE SUMMARY



< 일본경제 회복할 것인가? >

- ❖ 최근 일본경제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론과, 현재 움직임은 구조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음
- ❖ 경기 회복은 對중국 수출의 호조로 시발되었으며 그 구조적인 動因은 불황기의 대대적인 인원 및 설비합리화, 업계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강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회복임
- ❖ 그러나 불황기에 시행된 반복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 미해결된 금융부실의 문제, 고령화에 따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가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고성장의 기반은 미흡함
- ❖ 종합해 볼 때, 세계경제가 유가 급등 및 달러가치 급락 등의 악재를 수반하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유지한다면, 향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은 1.5~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산업구조는 IT 및 환경친화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과 신소재산업으로 성장 축이 옮겨가고, 생산능력 확대도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져 비중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의 일본경기 회복은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설비투자 진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간활력제고라는 관점에서 공공지출과 기업정책의 방향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
- ❖ 또한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과 급속한 해외진출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한국 전통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R&D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제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줌



목 차

I. 들어가면서	1
II. 최근 경기 동향	2
III. 장기침체 탈피의 구조적인 동인	4
1. 對중국 수출의 호조와 디지털 가전시장의 확대	4
2. 제조업의 부활	4
3. 민간부문의 잠재력과 거대 내수시장	7
IV. 일본경제 성장의 장애요인	8
1. 방대한 국가채무	8
2. 금융 및 기업부실 잔존	8
3. 고령화의 문제	9
V. 일본경제의 향방	10
1. 거시경제 전망	10
2.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 전망	13
VI.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4
<별첨 1> 美-日 경제성장률 차이의 근본 원인	16
<별첨 2> 일본 정부의 '신규산업 창조전략'	18

I. 들어가면서

- '05년 1/4분기 일본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일본경제의 본격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의 회복에 대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과 현재 회복 모습은 구조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본경제의 회복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과거 회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향후 경기방향과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특히 현재 침체 국면에 빠져있는 한국경제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의 회복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음

※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배경 개관

- 1985년 플라자협정으로 달러당 240엔에서 120엔으로 엔화가 2배로 절상되자, 엔고를 우려한 일본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고 일본기업들도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여 80년대 말까지 호황이 유지됨
- 경기호황으로 주가와 지가가 급등하는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걷히면서 '91년부터 주가 및 지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장기침체기로 들어섬
- 장기침체의 원인이 구조적인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과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치중하여 국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됨
- 또한 경제주체 간의 협조체제와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폐쇄적인 기업운용으로 인해 빠른 기술혁신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성장의 한계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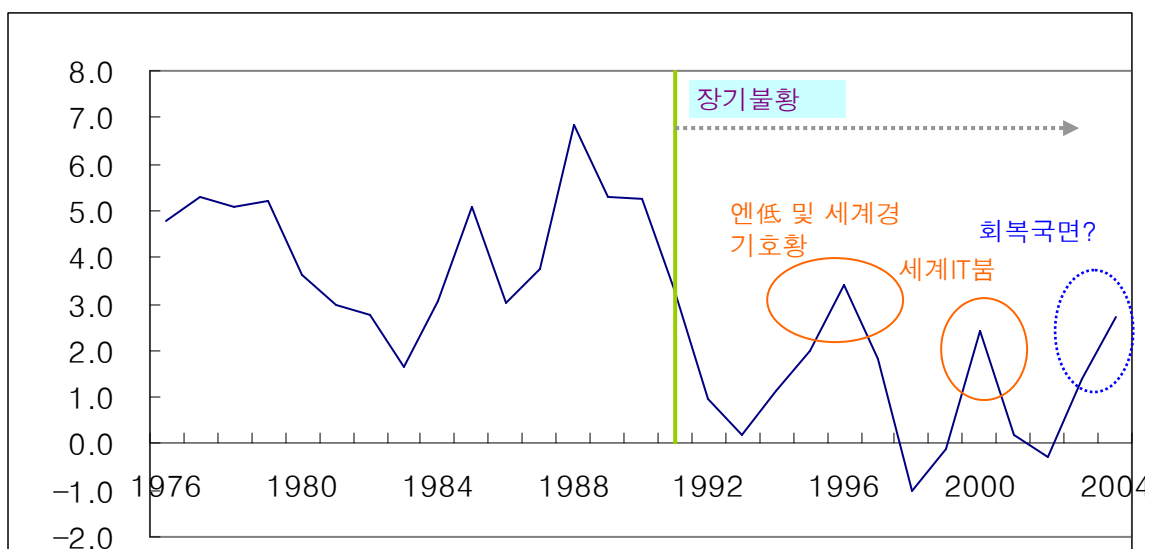
II. 최근 경기 동향

- 일본경제는 지난 '91년 버블경기 붕괴 이후 장기 침체 기간 동안 2차례 경기 회복을 시도했으나, 일시적 회복에 그치면서 결국 '잃어버린 10년'의 오랜 장기 불황을 경험함
- 그러나 '02년 이후 서서히 침체국면에서 탈피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05년 1/4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2%, 年率환산 4.9%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年率환산이란 GDP가 분기마다 1.2%씩 성장했을 경우, 1년 간의 성장률을 계산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전년대비 연평균 GDP성장률과는 다름

- 특히 '02년 하반기부터 지속해 온 수출 견조세가 기업 투자심리, 가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어져, 가계소비와 설비투자는 '05년 1/4분기에 전기대비로 각각 1.1% (연율환산 4.6%), 2.4%(연율환산 9.9%)의 증가세를 보임. 따라서 향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의 지속 여부가 경기 회복의 관건임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內閣府 (05.6.15),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주: '94~'04년은 일본 內閣府 통계 이용 (93SNA체계에 의한 연쇄가격지수)

'76~'93년은 IFS 통계 이용 (2000년 기준 불변가격지수 방식)

□ 2000년 이후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는 수출도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및 고용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00년대 전반적인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02~'04년에 평균 7~15%의 증가율을 유지했고, '05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5.0% 증가함. 기업 물가는 '05년 1/4분기에 전년동기비 1.4% 상승(14개월 연속 상승세)하였으며, '05년 4월 실업률도 4.4%로 '9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 금융 측면에서는 일본은행이 경기호조에 맞추어 통화공급을 완만하게 증가시켜 단기금리는 0% 부근에서 안정세에 있으며 장기금리는 다소 하락한 1.2%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음

☞ 결국 최근의 경기 회복은 '02년 이후 수출 증가가 기업 수익 증대로 이어졌고, 이것이 설비투자 증가와 가계 소득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소비가 증가하는 선 순환 구조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다름

- 일본경제는 '95년 말~'97년 초, '00년 말~'01년 초 2차례에 걸쳐 경기 회복 가능성을 나타낸 바 있으나, 정부정책의 실패 등으로 시장 펀더멘털의 강화를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 '95년 말과 '00년 말에 이러한 경제적인 호재가 일어나기에 앞서 시행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기하강국면이었던 '97년 초의 소비세 인상 등은 정부경기대책의 mis-timing으로 볼 수 있음

<현재 회복기와 과거 2차례 회복기 비교>

	'95년 말~'97년 초	'00년 말~'01년 초	'02년~
회복배경	- 엔화가치 급락 83.2엔/\$('95.5) → 126.9엔('97.4.) -'96~'97년 세계경기호조	- '00년 이후 세계 IT 버블	- China Effect로 수출 호조 → 기업수익 개선 → 설비투자 및 가계 소득 증대 → 소비 증 가 (선 순환 구조)
회복주도	수출	수출	수출, 소비, 설비투자

III. 장기침체 탈피의 구조적인 동인

1. 對중국 수출의 호조와 디지털 가전시장의 확대

- 일본의 對중 수출은 '0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02~'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를 상회하였으며, 對중 수출비중은 '03년부터 10%를 상회하고 있음

-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일본의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對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03년에 들어 전기·전자의 對중국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고, 일본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도 '03년에 18%로 1위를 차지함

<일본의 對중국 수출 추이>

(단위: %)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對中 수출증가율	10.4	1.4	23.2	14.9	32.3	33.3	20.5
對中 수출비중	5.2	5.6	6.3	7.7	9.6	12.2	13.1

자료: 무역협회, 일본 무역통계 (KITA.NET D/B)

- 디지털 가전시장의 확대로 액정TV, DVD레코더, 비디오카메라 등의 출하가 2000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으로 신장됨

- 액정TV, DVD레코더, 비디오카메라는 2000년대의 '新삼종 神器'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가전시장의 확대에 도시바, 마쓰시다 등 일본 대형 전자업체 9사의 경상이익은 '02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 위와 같은 對중국 수출 호조와 디지털 가전시장의 확대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01~'02년 평균 -12.1%의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2. 제조업의 부활

- 일본 제조업은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침체기간 동안 대대적인 인원 및 설비합리화와 업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음

- 장기불황의 타개를 위해 일본식 인사제도의 핵심이었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였으며, 특히 마쓰시타는 '01년 한 해에만 1만 3천명의 종업원을 감축함

<일본 제조업의 인력감축 현황>

(단위: %)

	제조업평균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	금속	비철금속
1992~2003	-20.2	-11.6	-28.0	-38.1	-20.2	-15.2
2000~2003	-12.6	-5.4	-27.6	-17.0	-17.4	-10.7

자료: 경제산업성, 경제산업통계. 후생노동성, 매월 근로통계.

-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업간 사업 통폐합 등 업계차원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추진해 왔음

<주요 업종별 업계재편 현황>

업종	합병, 통합, 전략적 제휴 등
반도체	- DRAM은 엘피다메모리(NEC+히다치) 1개사로 통합 - LSI는 도시바-후지쓰, 히다치-미쓰비시, NEC 3강 체제로 전환
철강	- NKK-KSC 통합(JFE), NSC-스미토모-코베의 제휴로 5대 기업 체제에서 실질적 2사 복점체제로의 재편
조선	- NKK-히다치, IHI-스미토모 등이 통합되어 7사에서 4사 체제로 전환

자료: 일본철강연맹, 조선협회, 가전협회 등 자료 인용.

- 특히 불황기, 매출부진과 수익 악화 상황 속에서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의 기반을 강화시켜 옴

<일본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단위: %)

	1990	1995	1997	2000	2002
전산업	2.8	2.7	2.9	3.1	3.1
제조업	3.4	3.4	3.7	3.7	4.0

자료: 文部科學省, 과학기술백서

-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헤이세이 호황의 정점이던 '90년 3.4%였으나, '02년에는 4.0% 수준으로 오히려 상승하였음. 참고로 일본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02년 기준으로 3.12%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0.86% 포인트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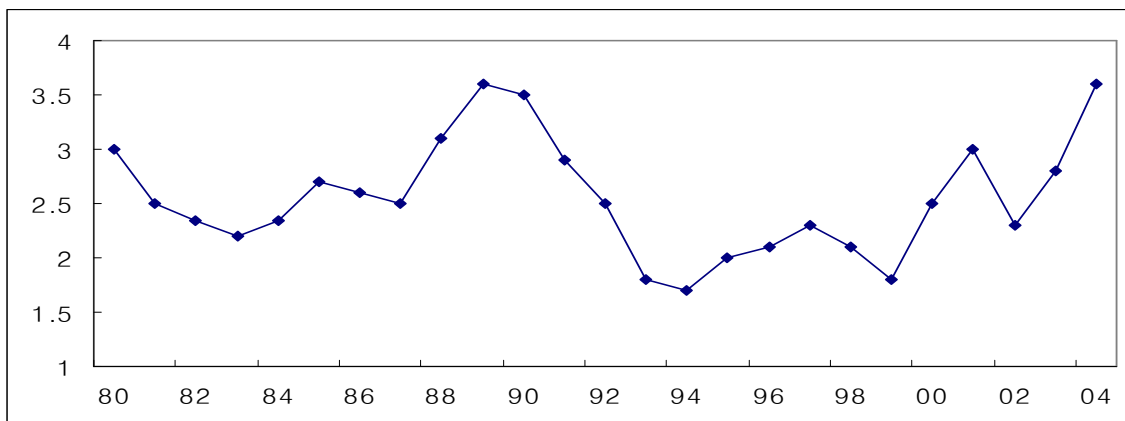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Japan	2.90	2.78	2.86	2.95	2.96	2.99	3.07	3.12
United States	2.51	2.55	2.58	2.60	2.65	2.72	2.74	2.67
Germany	2.25	2.25	2.29	2.31	2.44	2.49	2.51	2.52
EU-25	1.72	1.71	1.72	1.73	1.77	1.80	1.83	1.83
Total OECD	2.09	2.12	2.14	2.16	2.20	2.24	2.28	2.26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04.5)

- 이러한 노력으로 제조업의 이익과 매출액이 0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04년에 2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갱신하였음

<일본 법인기업 평균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 업종별로는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수출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소매 등 유통과 건설 등 내수업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미약함

<일본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단위: 전년동기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산업	매출액	4.8	- 2.2	0.8	1.8	5.4
	경상이익	38.3	- 40.8	56.2	24.5	21.2
제조업	매출액	5.7	- 2.1	2.7	3.3	6.2
	경상이익	50.0	- 57.7	98.4	29.5	22.9

자료: 도쿄증권거래소 및 일본경제신문

3. 민간부문의 잠재력과 거대 내수시장

□ '90년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첨단 부품 및 소재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계는 장기불황 속에서도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해 잠재적인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

- 일본기업은 첨단기기 제조 부품 및 소재를 거의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최근 수년간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93년 이후 가계의 부채/자산비율이 14% 내외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02년 가계의 금융자산도 1,396조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383조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현금·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비심리의 회복 여부에 따라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일본의 내수시장은 한국(5천 8백억 달러)의 약 7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03년 말 현재 4조 2천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10조 9천억 달러)과 EU-15(6조 8천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 제품 개발이 완료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내수 기반이 크므로 효율적인 대량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따르는 기업대형화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또한 일본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서 내수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시장에서의 높은 성공 가능성을 의미함

IV. 일본경제 성장의 장애요인

1. 방대한 국가채무의 문제

- 일본 정부는 '90년대 장기 불황 타개를 위해 구조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대를 통한 저금리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를 반복하여 국가부채가 '90년대 초 GDP 대비 50%에서 04년 163.5%로 급증함

<국가별 국가채무/GDP 비율>

(단위: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OECD평균
163.5	63.5	67.0	74.0	43.4	26.1	76.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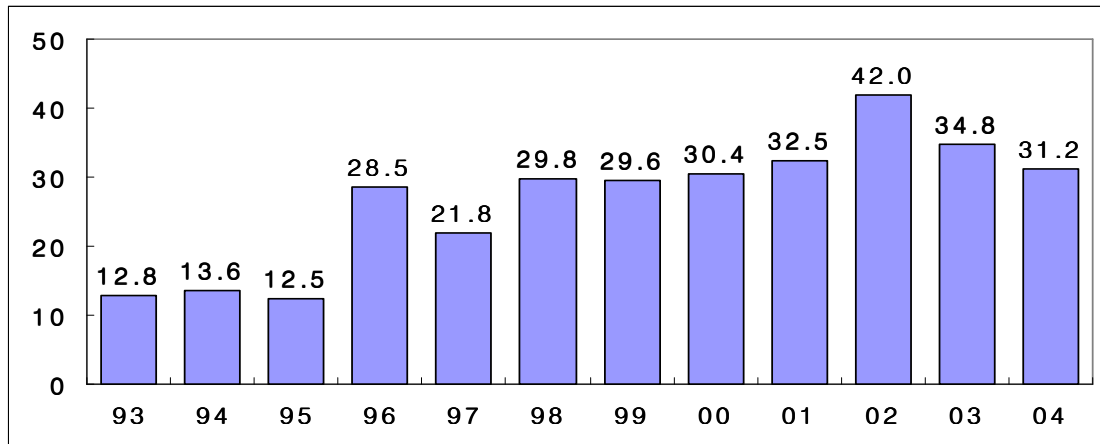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급의 급증도 국가부채 증가의 요인이며, 누적적인 부채의 증가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름. 따라서 방대한 공적 조직인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금개혁 또한 시급한 실정임
 - 보스턴대학의 Kotlikoff교수에 따르면 향후 5~10년 사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할 경우 의료, 복지, 연금 등에 의해 장래 후대에게 발생할 채무 부담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일본 재무성은 장래의 연금 부담은 800조 엔을 초과할 것이라고 시산한 바 있지만, Kotlikoff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Kotlikoff, L. and B. Raffelhuschen, (1999)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Glob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2, Papers and Proceedings (May), pp161-166

2. 금융 및 기업 부실의 문제

- 일본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부실은 '02년 이후 고이즈미 내각의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은행부실채권이 감소함으로써 점차 해결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04.9월 결산기준으로 일본계 은행 전체의 부실채권(파산, 고정, 3개월 이상 연체, 대출조건 완화 등)은 31.2조 엔으로 '02.3월 결산기에 비해 10.8조엔 감소했으며, 총대출금에 대한 비중도 8.9%에서 7.2%로 하락함

<일본의 은행부실채권 추이>

(단위: 조엔)



자료: 일본 금융청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04년 현재 31.2조 엔으로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근본적인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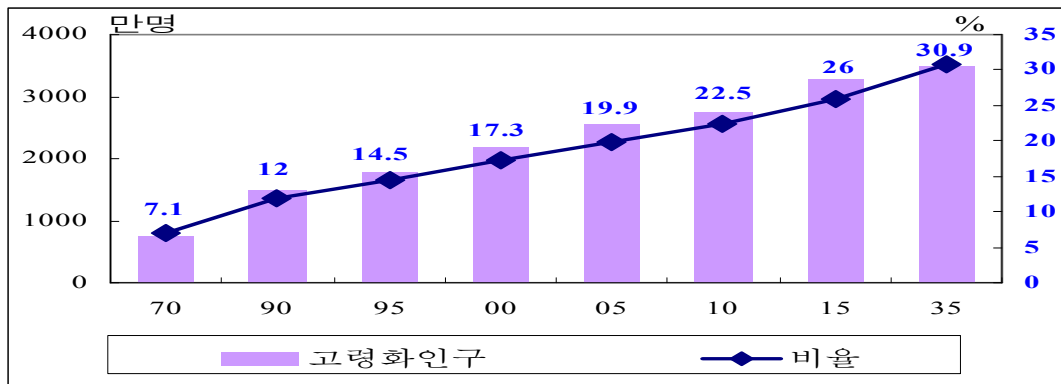
-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으며, 중소형 금융기관 중에서 파산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큼. 또한 대형 은행 가운데서도 부실채권 정리의 실적 격차가 상존하고 있음

3. 고령화의 문제

- 일본은 '06년 세계 최초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총인구도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초고령 사회', '인구감소 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 특히 35년경이면 일본의 고령 비율은 31%에 이르러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기형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올드 올드(old-old)' 또는 '후기고령자'로 불리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00년 현재 75세 이상 인구는 7%를 넘어섰고, 10년에는 10%를 초과하여 인구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임

<일본의 고령화 추이(1970~2035년)>



자료: 일본 총무성 및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고령화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생산측면에서의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측면에서는 고령자의 평균소비성향이 전체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으로 고령자 세대가 수년간 일본 전체 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75세 이상의 인구가 10%를 초과하는 2010년 이후에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젊고 활기 있는 노동력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V. 일본경제의 향방

1. 거시경제 전망

□ 일본 경제는 기업부문의 호조가 가계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접어 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세계경제가 유가 급등 및 달러가치 급락 등의 악재를 수반하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유지한다면 경기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일본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인해 1.5~2%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낮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못하고, 불가측적 악재가 발생한다면, 최근 회복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순환적인 회복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일본 주요경제지표의 중기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률	0.9	1.9	2.1	1.3	2.3	1.9
개인소비	1.3	1.0	1.5	0.8	1.3	1.5
설비투자	-0.8	4.8	4.2	-0.2	5.5	3.3
내수기여도	0.8	1.7	1.9	1.0	2.0	1.9
수출증가율	2.5	9.6	6.3	4.9	6.2	4.0
수입증가율	1.8	8.8	7.3	3.7	5.8	5.2
외수기여도	0.1	0.4	0.1	0.3	0.3	0.0
무역수지(조엔)	11.4	12.9	13.2	13.7	14.2	12.5
엔화환율	118.2	118.5	120.0	115.0	118.0	119.0

자료: UFJ總合研究所 (05. 6)

주: 엔/달러 환율은 \$1당 엔화표시가치를 나타냄

* '04년 12월에 連鎖방식(chained index)에 따르는 새로운 가격지수를 사용함에 따라 과거 경제성장률이 기존 추계치보다 1%p 가량 적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난 5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디플레이션 상황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년 중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점차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엔화는 미국 경상적자 증가로 절상압력이 있으나 미국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인해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무역수지는 對중국수출 호조,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85년 플라자협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엔高 문제는 '90년대 불황기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로 대부분 해결된 상황이며, 엔/달러 환율이 현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상 일본경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률이 향후 2010년경까지 1.5~2.0%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80년대 호황기의 3% 이상의 고성장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10여 년의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정상적인 경기사이클로 환원하여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일본 GDP성장률 최근 추이 및 장기 전망> (단위: %)

'02	'03	'04	'05~'10	'11~'20	'21~'30	'31~'50
-0.3	1.4	2.7	1.7	1.3	1.1	0.7

자료: UFJ總合研究所(2005.6), Goldman Sachs(2003.10),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주: 05~10년 평균성장률은 UFJ總合研究所(2005.6) 전망치 이용. 11~50년 전망치는 Goldman Sachs(2003.10) 추정치 이용

※ 美-日 경제성장률 차이의 근본 원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 미국경제는 3.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1.5% 내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2%를 상회하기 어려움.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미국은 '80년대 불황기에 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였음
- 또한 '90년대에 들어 IT의 발전이 제조업의 빠른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고, GDP대비 투자비중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고 고성장을 지속

합

- 더욱이 양국간 소비기반의 차이는 경제성장률의 근본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음. GDP 구성항목 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평균 성장률이 지난 10년 간 미국은 5%를 상회하는 반면, 일본은 1%를 하회하고 있음

2.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 전망

□ 일본경제는 향후에도 산업구조 고도화가 계속되어 IT 및 환경친화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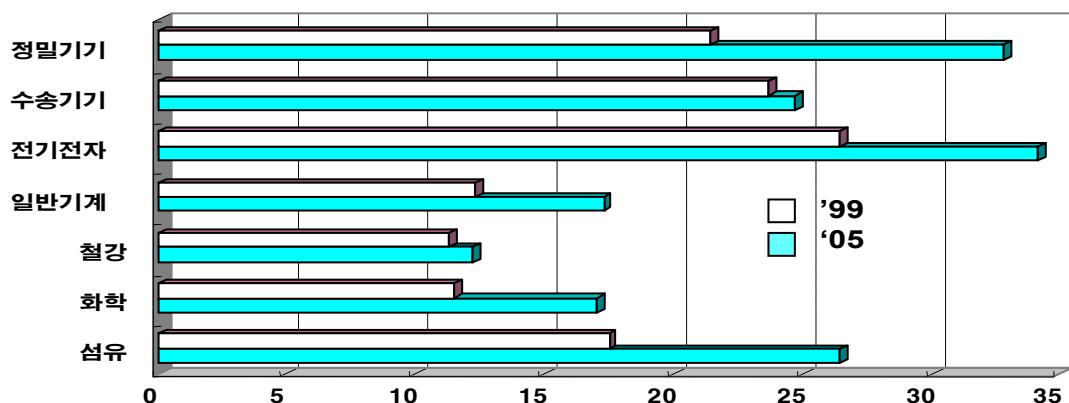
-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對기업 및 對개인 서비스, 의료/보건/사회보장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향후 고용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점차 줄어듦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소재 및 에너지 저소비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의 '신규산업 창조전략'(*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조)에 따라 제조업 가운데 첨단산업과 신소재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은 현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철강 등 소재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성장률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환경 조화형 산업구조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 또한 최근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향후 일본 제조업의 생산 능력 확대는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주요 산업별 해외생산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경제산업성

- 결국, 일본 정부의 '신규산업 창조전략'이 계획대로 구현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 제조업 해외 이전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비중 증대와 제조업 비중 축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

<일본 산업구조 변화 전망>

(단위: %)

	1990	2000	2010	2025
농림수산업	2.1	1.6	1.2	0.9
광공업	33.5	32.3	31.6	29.7
건설/서비스업	64.4	66.1	67.2	69.4

자료: 경제산업성(04. 5. 18)

-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일본 내부 환경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추진에 따른 역내 산업간 무역 비중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VI.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소비, 설비투자의 회복에 기인한 최근의 일본경기 회복은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 한국의 對GDP 수출비중('03년 46%)이 일본('03년 12%)대비 높은 만큼, 수출증가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즉, 과잉공급과 수요부족 아래 초저금리를 통한 투자 유인책보다는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공공투자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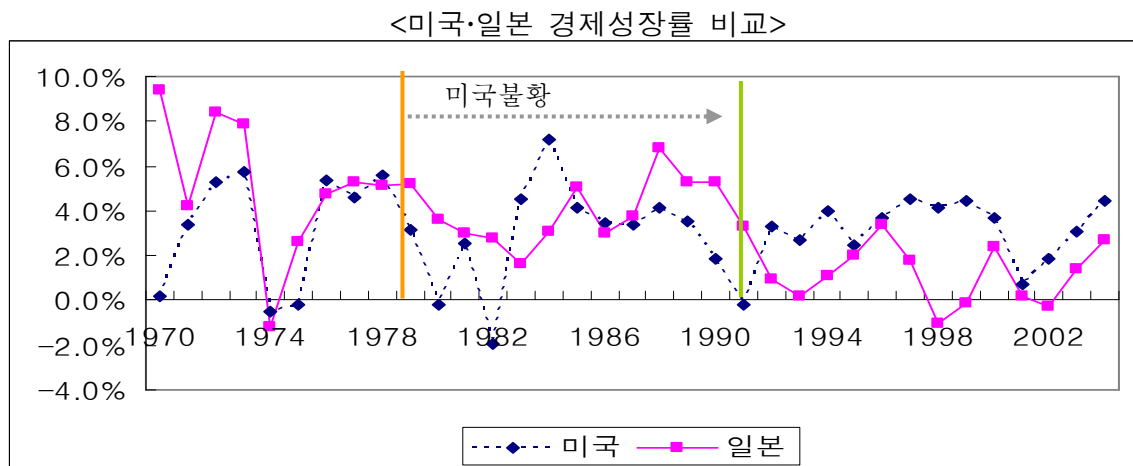
- '90년대에 일본은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가 늘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직면하여 빈번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음
- 한국에서도 최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늘어나기보다는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을 지양하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으로 금리인하 여지를 확보하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및 규제 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 한편 한국경제도 일본경제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계속되어 제조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IT 및 환경친화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므로 제조업 부문 고용 감소 등 그 과정에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급속한 해외진출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한국 전통 주력산업의 경우,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제품 고급화·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R&D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일본의 첨단기술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의 틈새(stuck in the middle)에서 수출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크게 위협받고 있음. 향후에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
- 따라서 일본경제의 회복 경험을 고려할 때, 산업차원에서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차원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원가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임
- 즉,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가의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성과 기술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부품·소재를 개발해야 하며, 정부는 전략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함

<별첨 1> 美-日 경제성장률 차이의 근본 원인

* 미국경제는 3.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1.5% 내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2%를 상회하기 어려움

□ 미국은 '80년대 불황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로 근로 의욕과 법인투자 확대를 유도하였고 시장자유화 및 구조조정촉진으로 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였음

○ 부실 상업은행의 경우는 주로 매각방식(79%)을 택하였고 S&L(Savings & Loan crisis)의 경우는 재정자금 투입(75%)으로 단기간에 정리함



자료: 일본 內閣府 (05.6.15),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또한 '90년대에 들어 IT의 발전이 제조업의 빠른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고, GDP대비 투자비중 증가('80년대 7% 수준 → 90년대 13%)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고 고성장을 지속함

<'80~'90년대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1979-1990	1990-1995	1995-2000
노동생산성	3.0	3.7	5.7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시간당 산출량(output per hour)으로 정의

- 더욱이 양국 간 소비기반의 차이는 경제성장률의 근본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음. GDP 구성항목 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평균 성장률이 지난 10년 간 미국은 5%를 상회하는 반면, 일본은 1%를 하회하고 있음

<美日の 가계소비 증가율 비교>

(단위: %)

	'91~'95	'96~'99	2001	2002	2003	2004
미국	5.3%	6.3%	4.7%	4.5%	5.2%	6.0%
일본	3.5%	0.6%	0.7%	1.0%	0.2%	1.5%

자료: 일본 内閣府 (05.6.15),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별첨 2> 일본 정부의 '신규산업 창조전략'

- 일본 정부는 2003년 11월 '신규산업 창조전략'을 발표하고 과잉설비 폐기 등 축소지향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7대 전략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미래지향적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신규산업 창조전략'에서의 7대 전략 산업군>

첨단적인 신규산업분야	시장요구 확산 대응 산업
①연료전지(자동차나 가정용 등) ②정보가전, ③로봇, ④컨텐츠	⑤건강 복지, ⑥환경/에너지, ⑦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자료: 경제산업성 (04. 5. 18)

- '신규산업 창조전략'에 의하면, 나노기술, IT,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일본의 전통기술을 접목, 20~30년 동안 세계 Top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산업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임
- 7대 전략 산업분야의 Action Plan의 추진으로 신규산업 창조가 구현되었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 추정에 따르면, 7대 전략분야의 시장 규모 확대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2010년에 30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0년 일본 총 GDP의 30%에 해당하며, 현재 일본경제의 전체 제조업 규모와 비슷함

고준형 (☎ 02-3457-8262, e-mail: jgoh@posri.re.kr)
 박현성 (☎ 02-3457-8082, e-mail: hypark@posri.re.kr)